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자료

희망의 새시대

http://www.motie.go.kr

2016년 3월 22일(화) 조간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·방송·통신 3.21(월) 오전 11:00 이후 보도 가능)

문의 : 이귀현 에너지신산업진흥과장, 김덕기사무관·김태진주무관(044-203-5390)

전기버스, ESS 등 제주 에너지신산업 성과 본격화

- 우태희 산업부 2차관, 에너지신산업 현장에서 기업애로 청취 -

□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3.21(월) 제주도에 위치한 전기버스 배터리 교환시스템(BSS) 건설현장과 성산풍력 에너지저장장치(ESS)운영현장을 방문했다.

○ 이번 방문은 그간 에너지신산업 추진현황을 살피고, 시장 확산에 걸림돌이 되는 기업의 현장애로를 청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.

○ 우 차관은 에너지신산업은 신기후변화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주력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산업이라면서 민관이 협력하여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.

□ 올해년 5월부터 제주도에서 전기버스 상업운행이 시작된다.

○ 다른 지자체에서도 전기버스가 도입된 바 있으나, 시범운행(서울시 남산순환길, 세종시 1대) 성격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전기버스를 시내버스노선에 투입하여 운행하는 것은 제주도가 최초이다.

○ 서귀포시 운수업체인 동서교통은 5월부터 연말까지 차례로 총 23대의 전기버스를 자사 노선에 투입하여 운행할 예정이다.

○ 이를 위해, 현재 2대 전기버스가 임시번호판을 부여받아 하중시험(로드테스트) 중에 있으며, 전기버스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배터리 교환시스템도 조만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.

○ 전기버스를 테스트하고 있는 동서교통 운전기사는 전기버스가 소음과 진동이 적어 승차감이 좋을 뿐만 아니라, 가속력이 좋고 운전하기도 편해 본격적인 노선투입이 기대된다고 말하였다.

□ 정부는 운행거리가 길어 환경개선효과가 큰 전기버스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.

□ 한편, 성산풍력은 제주지역 최초로, 작년 10월부터 풍력발전에 ESS(에너지저장장치)를 연계해 운영중에 있다.

○ 이를 통해 풍력발전의 간헐적 출력을 평준화하고, 생산된 전기를 ESS에 저장했다가, 피크시간대 집중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신재생 발전비중이 높은 제주도의 전력 계통 안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, 연간 약 8억 원의 수입증대도 기대되고 있다.

○ 성산풍력을 운영하는 남부발전은, 무엇보다도 성산풍력의 운영경험을 통해 얻어진 실적(트랙 레코드: Track Record가 향후 풍력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데 큰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□ 우태희 차관은 "제주도에서 에너지신산업 성공모델을 반드시 창출해, 내륙으로 확산은 물론 해외시장으로도 나갈 수 있도록, 기업들의 선전을 기대하며, 정부도 기업애로 해소에 전력을 다하겠다."라고 말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이귀현 과장(☎ 044-203-5390), 김덕기사무관(☎ 044-203-5392), 김태진 주무관 (☎ 044-203-539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